

이제 임기를 한달여 앞둔 제 11대 희망찾는 총학생회장 심정보씨를 만나 11대 총학의 지금까지의 활동과 학우들의 비판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제11대 희망찾는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심정보씨와 만났습니다

제11대 희망찾는 총학생회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의 현재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많이 좌충우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 사업이나, 학우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후회도 생기구요. 또 일년동안, 학생회의 연임간 부들이 없어서..... 다 처음 학생회를 하는 친구들이 학생회를 꾸렸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한 일년 다시하면, 잘 할 수 있겠다는 흔히 드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총학생회는 일부 여론에 따르면 그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교지 한울 7호에 실린 기사와, VOK의 성명서 발표, 얼마 전부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총학생회 개혁모임 등의 의견 제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총학생회장님이 스스로 현시점에서 평가하시는 11대 총학의 완성도를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비판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학교에서 학생회라는 것이 꾸러진지도 벌써 11년 째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학우들의 의사를 집중시켜 낼 수 있는 논의구조가 형성된 것은 7대 총학생회에 들어서서 일이고, 지금도 튼튼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골간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천학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망라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는 학생회 사업의 가장 큰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골간체계를 구성해 보자는 취지의 전체 학생회 대표자 수련회, 전학대회의 내용성 강화 등이었구요.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혔고, 학생회의 현재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 그런 기층대표자들을 안정적으로 만나는데 힘이 많이 딸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괴리'라는 부분은 그런 일상적인 논의 구조와 합의 구조가 안착화되어 있지 못한 조건들이 반영된 일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학생회가 지속되더라도 한 몇년간은 이러한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할겁니다. 그리고 정치투쟁에 관한 부분들을 학우들이 많이 제기 하는데, 그것도 역시 상반기에 학우들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부 - 학생회라면 이천학우의 대표 조직이자 지도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 의 입장만으로 무리한 수준까지 끌고 나가서 오류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을 접했을 때는, 총학생회라는 학우들의 대중 대표조직에 대한 애정에 기반을 두었다기 보다는 관찰자적이고 관조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비판들을 저희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학우대중들에게 일단 공개하고 보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시다. 일면으로는 섭섭한 점도 없잖아 있었어요.

11대 총학의 공약사항은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약은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어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반 공동체 건설이라는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기층 조직력과 논의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 사회 참여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은 학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총선부

터 시작해서, 올 여름에 있었던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까지 많은 사안들이 있었고, 그런 사안들 속에서 학우들의 정치적 인식들을 많이 확산 시키는 데는 성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생활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년 사업들 중에 많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남은 임기중에 매꿔 나갈 생각입니다. 고질적인 도서관 문제라든지, 기숙사에서의 생활문화 등에 대해서요.

총학생회가 기울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총학은 학내문제보다는 학외 활동의 참여에 더 큰 비중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특히, 지적된 두가지 정도의 예, 노수석 학우 사건 때의 총학의 입장과 재수강료와 기숙사비 징수문제를 앞두고 농활을 떠난 것 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구요. 현재 총학의 학내외 활동 각각의 비중은 어떠하며, 또 앞서 지적된 두가지의 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내와 학외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학생회가 역점을 두어야 되는 지점은 이천학우의 요구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학우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던 사회참여활동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비판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활을 떠나 버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읽고 나서는 저희도 많이 섭섭했었어요. 교지라는 학내언론의 하나로서의 책임감이 많이 결여된 기사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때 재수강료와 기숙사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농활도 미리 계획된 반드시 치뤄야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그 사업의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고, 학우들의 의견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학생회에 남겨두고 대중적으로 조직하여 농활을 떠났었구요. 저희 나름대로 많은 판단이 필요했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사회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재정 자립도도 그렇구요. 그런데도 학우들은 정치적인 식이나 성향,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순수하고도 진보적인 성향이랄까요. 사회,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힌다면 저희가 왜 그런 학외문제에 비중을 뒀야 하는지 학우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납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죠.

98학번 이후의 학우들은 모두 단일후보만을 보아왔고, 잘라 말한다면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대로, 후보들 또한 이미 총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도 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총학생회는 기존의 총학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온 학생회가 8대부터 지금의 11대까지 네번인데, 그 네 번의 학생회를 돌아볼 때 내적으로는 체계나 학생회 운영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던



인터뷰에 응하는 심정보 총학생회장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우들과 그 발전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은 학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간부들이 가진 인식상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학생회를 꾸려나가는 이상 학우들과 그런 평가를 같이 하기는 힘들거란 생각입니다. 지금 학생회도 그렇고, 한국 학생운동전체, 그러니까 한총련 전반도 그렇고, 전국에 걸쳐서 이런 문제 의식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학우들이 변화를 학생회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실무적인 면이 아니라 학우들의 생각이나 의식 수준의 변화죠. 내용면에서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저희 학교는 기능 실무적인 면, 학생회 간부들의 대중성과 개방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겁니다.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회실에 모여 있을 때는 간부로서의 정체성을 띄지만 그들이 학우 대중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 되죠. 간부로서의 정체성으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의 폭과 활동의 폭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총학이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들에 대한 애정보다는..... 끊임없이 사회가 개별화, 파편화되고 있는 지금, 자기 삶에 울타리를 치고 사는 학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 삶의 테두리에서만 발작만이라도 더 밖으로 나와서 주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김종한 학우들끼리 운동을 한 일주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걸 보면 학우들에 대한 믿음이랄까, 그런 걸 가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마무리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도서관 사업, 즉, 사유화 문제와 청결 문제 등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김종한 학우들끼리, 그리고 농활도 한 번이 남았습니다. 다용도실도 한 번 정리하고 싶구요. 가장 큰 것은, 일년 사업과 학생회의 차후 방향을 학우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11월 첫째주 학술축전 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실 텐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 제 11대 희망찾는 총학생회가 더욱 알차고 사랑받는 총학이 되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최유라 기자